

가능인력 수요 · 공급 모두 감소, 임금은 소폭 상승할 듯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건설업 취업자 비중 7% 미만으로 하락

20 13년 상반기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2.2% 증가한 67.5조원, 하반기 건설 투자는 2.1% 증가한 7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 수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월에는 감소폭이 가장 커 5.6% 감소세를 보였고,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어 5월 현재 0.7%의 감소를 보였다. 올해 1/4분기의 건설업 취업자 구성비는 6.85%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 구성비가 7%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처음이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원인은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통계청 경제

활동인구조사에서 이들의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저임금을 무기로 건설 현장의 내국인 근로자들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숙련 인력 기반 붕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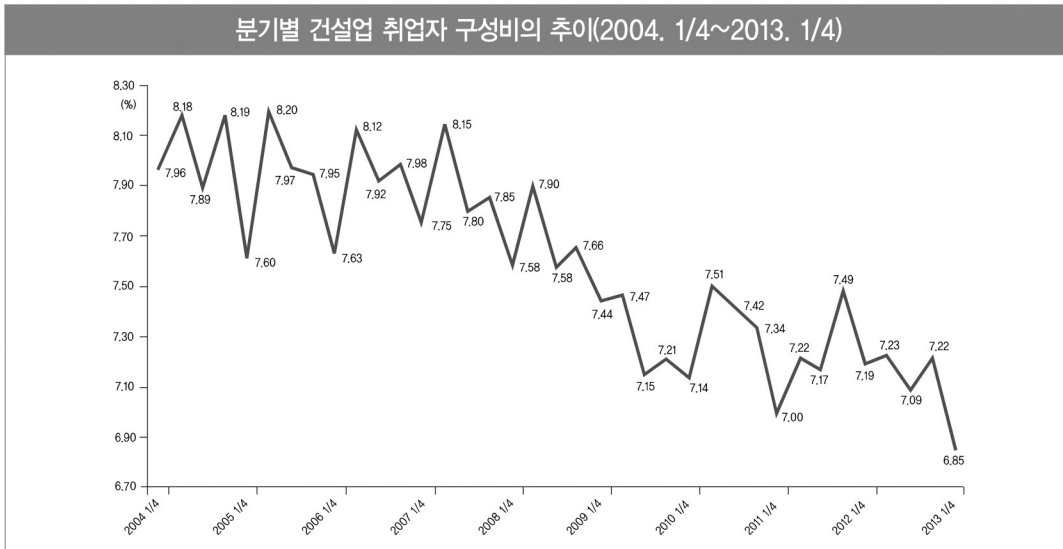
2012년 말 현재 전체 취업자 중 40대 이상의 비중이 61.0%인 것에 비해 건설 가능인력 중 40대 이상의 비중은 8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의 40대 이상 구성비는 12년 사이 13.5%p 증가해 고령화 경향이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건설 가능인력은 21.9%p나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할 수준이다. 2012년 말과 2011년 말을 비교해

건설업 취업자 수 및 건설투자 추이

(단위 : 천명, %, 조원)

항목	시기	2009	2010	2011	2012	2013				
						1	2	3	4	5
취업자	전(全) 산업	23,506	23,829	24,244	24,244	24,054	23,984	24,514	25,103	25,398
	건설업	1,720	1,753	1,751	1,773	1,671	1,604	1,693	1,778	1,807
	건설업 비중	7.3	7.4	7.2	7.2	6.9	6.7	6.9	7.1	7.1
	전년 동기비 증감률	-5.1	1.9	-0.1	1.3	-2.8	-5.6	-2.9	-0.5	-0.7
건설투자(2005년 불변가액)		159,2	153,4	146,2	143,0	67.5(상반기 전망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3.4	-3.7	-4.7	-2.2	2.2				

주 : 2013년 건설 투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치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각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각 분기.

보면 40대와 30대의 감소가 크고 60대 이상의 증가가 크다. 청년층의 진입은 중단되고 중년층이 줄며 노년층이 증가한다면 건설 현장의 숙련인력 기반은 붕괴되고 있으며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직종별 임금 동향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준거가 되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 노임단가' 자료에는 117개 직종의 8시간 기준 임금이 매년 두 차례 갱신되고 있다. 그 중에서 11개 주요 직종의 8시간 기준 평균 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3%, 그리고 하반기에는 6.8% 상승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9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 인력인 보통 인부의 임금은 8만 1,44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 인력의 평균 임금은 11만 4,885원으로 6.8% 상승했다. 임금 동향을 주요 직종별로 살

펴보면 2012년 9월 현재 하루 8시간으로 환산된 일일 일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4만 1,535원)이고 그 뒤를 타일공(12만 3,611원), 철근공(11만 8,264원), 콘크리트공(11만 7,989원), 조적공(11만 6,217원) 등이 있고 있다. 1년 간의 직종별 일일 임금 증감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비계공의 경우 11.5%가 올라 1만 4,611원이 상승했고, 배관공의 경우 10.1%가 올라 9,657원이 상승했으며, 콘크리트공의 경우 9.8%가 올라 1만 512원 상승했다. 주요 직종 중 전년 동기 대비 임금이 감소한 직종은 없다.

하반기 기능인력 수급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 국내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능인력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127만 8,000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건설투자 수요 증가와 반대 방향의 움직임으로 전년도의 통계적 반등에 대한 감소로 풀

특집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

이된다. 한편, 지속되는 고령화 추세와 젊은 층의 진입 기피의 심화로 공급은 0.4% 줄어 117만 명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불법 취업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이 작년에 이어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임금은 소폭 상승할 듯

2013년 하반기에 기능인력 수요와 국내 기능인력 공급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내국인 기능인력 부족이 더 큰 영향을 미쳐 임금 수준(하루 8시간 기준)은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하반기 숙련 인력의 평균 일일 임금은 전년 대비 3.2% 증가해 11만 8,561원이 되고, 비숙련 인력의 경우 전년 대비 2.7% 증가해 8만 3,642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내국인 고령화에 따라 공급이 줄면서 반

드시 필요한 인력의 임금 상승률이 인력 수요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율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외국인력의 공급이 정부의 의도대로 통제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는 '건설업취업등록제'를 통해 건설업종 차원의 허용 인원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것은 방문취업 동포(H-2)를 대상으로 건설업 취업 허용 인원 상한선을 설정하고, 건설업 취업 등록 및 취업 교육을 거친 동포에게만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2012년 말에 정부는 2013년도 건설업취업등록제 도입 규모를 5만 5,000명, 그리고 고용허가제는 1,600명으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 동결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불법 취업자가 존재(2011년 기준 약 12만명)해 건설 기능인력 수급과 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줄 실질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CERIK

2013년 하반기 건설 기능인력 수요·공급 및 임금(8시간 기준) 전망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e)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설투자(조원)	146,2	66,1	76,9	143,0	67,5	78,5	146,0	
인력 수요 (천명)	건설업 취업자	1,234	1,284	1,297	1,291	1,240	1,278	1,259
	건설 기능인력	1,145	1,178	1,175	1,177	1,168	1,170	1,169
일일 임금(원) (8시간 기준)	숙련 인력	105,674	112,435	114,885	113,660	116,708	118,561	117,634
	비숙련 인력	74,808	80,732	81,443	81,088	82,992	83,642	83,317
증감률(% , 전년 동기 대비)								
건설투자	-4.7	-1.8	-2.0	-2.2	2.2	2.1	2.1	
인력 수요	건설업 취업자	-2.3	4.4	4.8	4.6	-3.4	-1.5	-2.5
	건설 기능인력	-0.4	1.9	3.7	2.8	-0.8	-0.4	-0.6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숙련 인력	5.0	8.3	6.8	7.6	3.8	3.2	3.5
	비숙련 인력	4.7	9.1	7.7	8.4	2.8	2.7	2.7

주 : 1) 건설 투자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임.
 2) 건설 기능인력 수급을 내국인으로 국한한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도입 규모 및 단속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 변수이기 때문임.
 3) 일일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숙련 인력 임금은 11개 주요 직종(형틀목공·건축목공·비계공·조적공·미장공·방수공·타일공·

콘크리트공·배관공·도장공·철근공)의 평균 임금이며, 비숙련 인력 임금은 보통 인부의 임금을 의미함.
 4) 2013년 수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